

10  
2019

# 재외동포의

# 창



특집 \_ 문 대통령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에 동포들이 힘 보태달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 재외동포가 함께하겠습니다”  
화제 \_ 문 대통령 “DMZ, 국제평화지대 만들자... 유엔기구 주재 평화유지”



# 재외동포 차세대와 함께할 대한민국 미래 100년

## 교육기관부터 재외동포 차세대 교육에 앞장서야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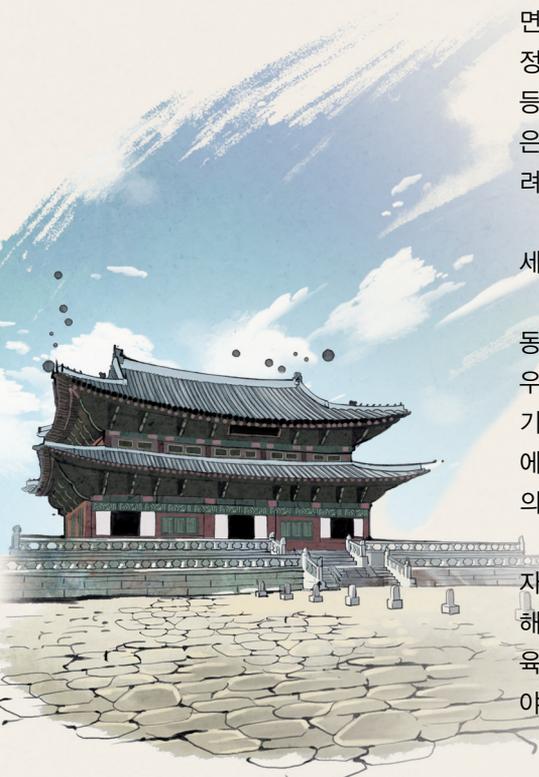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재외동포'가 처음으로 교과서에 명기된 것은 크게 기념할 일이다.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배후에서 적극 지원한 인물로서, 연해주 독립 운동의 대부로 추앙받는 최재형 선생과 민족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윤동주 시인이 올해 초등학교 교과서에 '재외동포'로 처음 표기되어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전 세계 180개국에 흩어져 생활하는 재외동포는 국가적으로 따뜻한 포용과 지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대의 소중한 국가적 자산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외동포 사회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민족 정체성이 희박해지고 많은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 일본지역의 재외동포는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해방된 이후에 가장 심한 냉대와 차별 속에서도 국적을 지키고 긴 시간 조국 발전에 눈물겨운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이르는 동안 일본으로의 귀화가 증가하고, 한글을 잃어버린 세대, 정체성을 상실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으며 악화일로의 한·일관계는 동포들을 더욱 난감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지역 재외동포는 중국의 뿌리 깊은 중화사상과 1978년 이후 개혁 개방에 따른 산업화의 진전으로 동포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해체 위기가 진행 중이다. 중국동포의 가족 이산과 해외 이주 시에 우리나라가 동포로서 잘 포용하지 못하고 외국인력의 경제적 측면으로 접근한 아쉬운 점도 일부 있었다. 북미지역 역시 세대교체에 직면해 있는데 1세대와 2세대 간의 세대교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7개의 한국교육원과 1천여 개 한글학교에서 한국어, 한국역사, 한국문화 등을 가르치고 있으나 학생 숫자는 4만 명대에 머무르고 민족 정체성 유지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러시아와 CIS 지역도 옛 소련 붕괴 후에 대두한 민족주의와 한글교육의 어려움, 본국과의 교류 부족으로 동포 차세대에 대한 교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재외동포재단을 중심으로 재외동포 차세대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전 세계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을 잇는 한민족공동체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재외동포 차세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8년부터 '북방지역 동포학생 초청 기술교육사업'을 20년 넘게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러시아,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의 4개국에서 고교 단계의 동포 자녀들을 초청하여 고등학교 3년간 교육비, 기숙사비, 교재비, 생활비를 지원하는 전액 무료지원 사업으로 그동안 초청인원은 210명에 달한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호응하여 2021년부터는 기존의 '북방지역 동포 초청'을 베트남 등 남방지역 동포까지 확대하여 초청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전 세계 180개국에 분포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과 그 자녀들의 민족 정체성 교육, 한국역사, 문화 교육의 중요성은 글로벌 시대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재외동포 차세대와 함께할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위하여 교육기관부터 체계적인 교육 방향을 세우고 '지속 가능한 동포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때이다. **장**





- 02 권두언      재외동포 차세대와 함께 할 대한민국 미래 100년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 04 특집      문 대통령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에 동포들이 힘 보태달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 재외동포가 함께하겠습니다”
- 08 화제      문 대통령 “DMZ, 국제평화지대 만들자… 유엔기구 주재 평화유지”
- 10 기획      대만서 日 황족 척살 기도 후 순국한 조명하 의사
- 12 글로벌 코리안      美 캘리포니아 주 한글날 제정 산파 역할 한 박동우 씨  
                  뉴질랜드 한인사회의 해결사, 변경숙 오글랜드 한인회장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에게 한글 가르치는 정덕영 씨
- 14 한민족 공감 1      재외동포, 180개국에 750만 명… 국가별로 미·중·일 순으로 많아
- 15 한민족 공감 2      “전국체전 100회를 맞아 감회가 새롭습니다”
- 16 동포소식      전 세계 동포사회, 개천절·세계 한인의 날 맞아 축하 행사 외
- 19 동포 캘린더      “한·일 관계 악화로 日 정부 재외동포 사업에 규제 가할 수 있어”
- 20 유공동포      봉오동 전투 승리로 이끈 ‘백두산 호랑이’ 흥분도 장군
- 21 지구촌 통신원      재불 한인 1세대의 애달픈 이야기 다룬 다큐 佛 전쟁영화제 출품
- 22 동포문학      3·1 운동 정신과 일본 속의 나  
                  남명지 일본
- 24 OKF 뉴스      젊은이여 세계를 누벼라! 글로벌 한상의 노하우 대공개 외
- 25 기고문      재외동포들은 애국자다  
                  박기석 시공테크, 아이스크림 미디어, 아이스크림 에듀 회장
- 26 재단공지      영화 ‘헤로니모’ 시사회

발행인: 한우성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전화: 82-64-786-0200, 팩스: 82-64-786-0239,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4층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8,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연구소통부 prc@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외교부 산하 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 대통령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에 동포들이 힘 보태달라”

‘세계한인의 날’ 기념사… “동포들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함께해주길”



**문** 재인 대통령은 10월 5일 서울 그랜드 워커히 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동포들의 애정 어린 노력이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냈듯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개최하는 데 힘을 보태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0년 전 각지에서 흩날린 태극기가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했듯이 동포 여러분께 다시 한번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함께 해주시길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0년간 이룬 성취에 동포들의 애국과 헌신이 담겼듯 새로운 100년에도 750만 동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

통령은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세계한인의 날’이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며 “해외 동포들의 삶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역사이고, 눈물과 영광이 함께 배어있는 우리의 근현대사”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1919년 일본에서 한인 유학생이 발표한 2·8 독립선언서는 3·1운동의 기폭제가 됐고,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과 말레이시아 고무농장에서 보내온 우리 노동자들의 피·땀이 담긴 독립운동 지금은 임시정부에 큰 힘이 됐다”고 역설했다.

## 재외동포 안전·권익 지속적 향상 약속

문 대통령은 재외동포의 안전과 권익의 지속적인 향상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해외 안전지킴센터를 열어 365일 24시간 실시간으로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쓰나미,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신속대응팀을 파견하고 선박 사고나 테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안전하게 국민을 구출



2



3



4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역대 최초로 사건·사고만을 담당하는 영사를 선 발해 2018년 32개 공관에 배치했다"면서 "올해 9월 기준 84개 공관에 총 117명이 활동 중인데, 계속해서 (인원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제정, 영사조력의 범위와 의무,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고, 올해 7월에는 재외동포 관련 법령을 개정해 더 많은 동포가 세대 제한 없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의 공동 발전을 위해 동포간담회 현장의 생생한 건의에도 귀를 기울였다"며 "뉴욕 한인 이민사 박물관 건립과 프랑스 한인 이민 100년사 발간 등은 동포들의 제안으로 이뤄진 성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0년 동포들의 노력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운 나라로 만드는 것"이라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함께 잘 사는 나라, 삶 속에서 힘이 되는 조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마친 후 고종이 미국인 공사 데니에게 하사했던 '데니 태극기' 등 지난 100년간 우리 역사에 등장한 태극기들을 흔드는 퍼포먼스에도 동참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를 대표해 모인 400여 명의 한인회장 외에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포상을 받는 재외동포 유공자와 가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정현권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오사카부 지방본부 상임고문 등 5명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했다. 정 상임고문은 민단조직 활성화에 진력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외교부는 10월 7일 유공 정부포상자 명단 91명을 확정 발표했다.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한 동포는 김수길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도쿄본부 상임고문, 봉세종 싱가포르한국상공회의소 회장, 서영석 세인트빈센트아이서저리센터 과장, 이덕희 하와이 한인이민연구소 소장이다.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재외동포 대표로 인사에 나선 박원우 중국한국인회 회장은 "정치적 생각과 이상이 달라도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은 다를 수 없다"며 "우리 모두 공공외교의 주연이라는 사명감으로 민간외교에

노력하면 통일은 머지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행사에서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멕시코에서 온 재외동포재단 장학생 최민 등 한인 청년들이 애국가를 선창했고, 독립운동가 양우조·최선화 부부의 손녀인 김현주 씨가 세대를 이어 모국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글을 낭독했다. 1937년 중국 상하이(上海)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양우조·최선화 부부는 김구 선생의 주례로 결혼했다. 임시정부 한글학교 교사로 일했던 딸 '제시'에 이어 손녀인 김씨도 미국에서 한글학교 교사로, 프리몬트 통합교육구 교육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김 씨는 "주말 한글학교에서 재외동포 아이들에게 우리 말과 역사를 가르쳐 민족 정체성을 심어주려 노력했다"며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무대에서 임시정부 요인 분들이 끝내 버리지 않았던 희망과 꿈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창**

1. 문 대통령이 10월 5일 오전 광진구 워커히호텔에서 제13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사를 하고 있다.
2. 문 대통령이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중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독립운동 이후 사용한 7종의 태극기를 이용한 '100년의 태극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3.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이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오사카부 지방본부 정현권 상임고문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4. 문 대통령이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한인회장들과 박수치고 있다.

#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 재외동포가 함께하겠습니다”

‘2019년 세계한인회장대회’ 성황리 개최... 74개국 380여 명 참가

‘2019 세계한인회장대회’가 전 세계 74개국 380여 명의 한인회장 3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0월 2~4일 서울 그랜드 워커히 호텔에서 열렸다.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이어 10월 5일 같은 장소에서 제13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이 거행됐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 재외동포가 함께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계한인회장대회는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고 외교부가 후원했다. 세계한인회장대회는 거주국 내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한 역량 결집과 모국과의 유대 증진을 위해 200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20회째를 맞았다.

개회식은 법륜 스님의 기조강연과 대회 공동의장인 강인희 러시아·CIS 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환영사,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축사 등이 이어졌다. 이번 대회는 한인회 운영사례 발표, 지역별 현안토론, 정부와의 대화 등 동포사회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와 단체간 교류마당, 한인회장의 밤 등 상호 교류의

장인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다. 올해 처음 시도되는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시간’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재외동포사회의 역할에 대한 열띤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개회식 환영사에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모국과 함께 재외동포사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100년을 이끌어 나가는 데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틀째인 10월 3일에는 한인회 운영사례 발표가 있었다. 우수사례로 지정된 미국 오렌지카운티 한인회, 뉴질랜드 오클랜드 한인회, 중국한인회, 캐나다 캘거리 한인회, 필리핀 중부루손한인회의 한인회장이 나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노하우를 공유했다. 최우수 한인회 운영사례에는 ‘교민안전대책위원회 운영’에 대해 발표한 필리핀 중부루손 한인회(회장 이창호)가 선정됐다.

## 재외선거 투표율 높이는 방안 집중 논의... “투표소 늘려달라”

이날 오후에 있었던 지역별 현안토론은 전 세계 10개 지역별로 지정 주제 및 지역별 유대강화와 모국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주제로 자유로운 토론이 있었다. 특히 재외국민의 선거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공통 주제로 논의됐다. 재외국민 투표는 어렵게 성사됐지만, 그동안 참여율이 낮아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대회 공동의장인 박원우 중국한국인회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에는 총선이 있어서 750만 동포사회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핫이슈로 부각되고



# 2019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3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주미 재외동포재단 후원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4



5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중국 내 한인회는 67개에 달하지만, 투표장소는 10개에 불과하다. 저의 경우는 투표하려면 허난성(河南省) 정저우(鄭州)에서 한국 총영사관이 있는 후베이성(湖北省) 우한(武漢)까지 600km를 가야 한다. 이런 불편함이 개선되지 않으면 투표율이 높아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소를 늘리거나 우편투표나 전자투표를 허용하는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우성 이사장도 폐회식 환송사에서 "투표참여율을 높이는 것은 '동포사회가 해줘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이사장은 "투표참여율을 두 배로 늘리면 대선후보가 여러분이 계신 곳으로 찾아갈 것"이라며 "투표소 부족 등 불편한 제도는 투표율이 두 배로 늘어나면 바뀔 것이고 현재 시스템하에서도 재외동포들이 과거 조국에 기여했던 헌신과 열정이 있으면 투표율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대회 사흘째인 10월 4일 진행된 '정부와의 대화' 시간에는 행정안전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선관위, 법무부 관계자가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국적법 등에 관해 설명했다.

## 한인회장들,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조속한 건립 촉구 등 결의문 채택

전 세계 한인회장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반도 평화통일과 올림픽 남북한 공동개최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를 다짐하는 내용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인회장단은 결의문에서 헌법에 '재외동포' 관련 조항을 명문화해 줄 것과 교과과정에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보다 많은 재외동포가 재외선거에 쉽게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민족 상호 이해와 소통을 위한 '재

외동포 교육문화센터'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체회의 이후 사흘간의 세계한인회장대회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는 폐회식이 진행됐다. 이번 대회 공동 의장인 박원우 중국한국인회 회장과 강인희 러시아·CIS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이 공로패를 받았다. 또한, 대회 기간에 한인회장단이 기부한 2천 200여만 원의 장학금을 '글로벌한상드림'에 전달했다. '글로벌한상드림'은 국내 차세대 한민족 인재 육성을 위해 2016년 재외동포 한상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사회공헌재단이다. 차기 대회 공동의 장에는 심상만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회장과 주점식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이 선출됐다. **장**

1. 세계한인회장대회 개막식에서 뜨거운 박수를 받은 국군의장대의 축하 공연.
2. 한인회 운영 우수사례 발표에 이어 열린 시상식.
3. 2019년 세계한인회장대회 폐막식.
4. 10월 2일 서울 그랜드 워커히 호텔에서 열린 2019년 세계한인회장대회 개회식.
5.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2019년 세계한인회장대회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 문 대통령 “DMZ, 국제평화지대 만들자… 유엔기구 주재 평화유지”

유엔총회 기조연설… 판문점선언 ‘DMZ 평화지대화’ 구상, 공식 제안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4일 “유엔과 모든 회원국에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빈곤퇴치·양질의 교육·기후행동·포용성을 위한 다자주의 노력’을 주제로 유엔총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74차 유엔총회의 일반토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해 남북·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내고, DMZ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생태·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평화유지(PKO)·군비통제·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MZ의 평화지대화는 작년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담겨 있다. 이 선언에서 남북은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키로 하고 당장 그다음 달부터는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확성기방송·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며 그 수단을 철폐해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남북이 이미 합의하고 일부는 진행된 ‘DMZ 평화지대화’를 국제사회에 재차 꺼낸 것은 남북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유엔을 필두로 한 국제사회가 DMZ에 들어와 평화지대화를 추진한다면 북한의 안전



보장에 도움이 되고 평화프로세스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4·27 회담 직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DMZ 평화지대화 과정을 유엔이 참관하고 이행을 검증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 “평화 구축되면 남북 공동으로 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남북 간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DMZ에는 약 38만 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돼, 한국군 단독 제거에는 15년이 걸린다”며 “‘유엔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지뢰제거의 투명성·안정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DMZ를 단순히 국제적 협력지대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국제 평화지대 구축



2



3

은 북한 안전을 제도적·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1년 반, 대화·협상으로 한반도는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줬다"며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은 권총 한 자루 없는 비무장 구역이 됐고 남북은 함께 DMZ 내 초소를 철거해 대결의 상징 DMZ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DMZ 평화지대화 제안의 바탕에는 ▲전쟁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3대 원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 뉴욕서 한·미 정상회담…

#### 북한과의 70년 적대 종식·무력불사용 재확인

문 대통령은 앞서 9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뉴욕 인터콘티넨탈 바클레이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조기에 북미 실무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나가자는데 합의했다. 두 정상은 특히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70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의 '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유지하고 북한을 상대로 무력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또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보의 핵심축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고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는 공통의 입장을 확인함으로써 지난 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선언 이후 불거진 동맹 균열 우려를 불식했다. 두 정상 간 회담은 이번이 아홉 번째로, 이날은 65분간 머리를 맞댔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보인 북미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정신이 여전히 유효함을 재확인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4개 항의 공동성명에 서명한 바 있다. 비록 하노이 담판이 '노딜'로 끝나 교착이 장기화하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협상 재개 국면에서 세계적인 성공을 거뒀던 싱가포르 회담 정신을 상기하면서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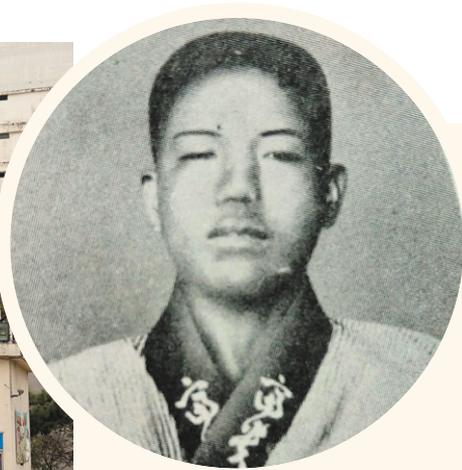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협상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려는 의지가 강함을 확인했다"며 "두 정상은 (북미간) 실무협상이 3차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도록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한미 양국이 대북 관계를 전환해 70년 가까이 지속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할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두 정상은 대북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이런 사실을 전하며 "두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기존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9월 24일 유엔본부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만나 2020년 도쿄올림픽 남북 공동진출,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유치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도쿄올림픽 '보이콧'까지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왔으나, 문 대통령은 올림픽을 통한 국제교류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뜻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

1. 문 대통령이 9월 24일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이 9월 23일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탈 바클레이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3. 문 대통령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9월 24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만나고 있다.

# 대만서 日 황족 척살 기도 후 순국한 조명하 의사

## 독립운동 '4대 의사' 중 한 명으로 꼽히지만, 제대로 조명받지 못해



조명하 의사가 일왕 히로히토(裕仁)의 장인인 구니노미야 구니요시 육군 대장 척살을 시도했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조사를 받았던 타이중 경찰서. 현재도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대만 경찰이 경찰서로 사용 중이다. 오른쪽 위는 조 의사의 체포 직후 사진. 체포와 조사 과정에서 구타를 당한 듯 얼굴이 심하게 부어 있다.

**19**28년 5월 14일 오전 9시 50분께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일본이 지배하고 있던 대만의 타이중(台中市) 중심 도로에서는 일왕 히로히토의 장인인 구니노미야 구니요시 육군 대장 일행의 긴 차량 행렬이 지나고 있었다. '황족' (皇族)의 일원이자 군부 실력자인 구니노미야는 일본의 본격적인 중국 출병을 앞두고 전초 기지 격인 대만에 주둔하고 있는 군의 전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특별 검열사' 자격으로 대만을 순시 중이었다. 구니노미야가 탄 차가 타이중 주(州) 도서관 앞 사거리 코너를 돌려고 속도를 줄였다. 그때 한 청년이 인파 속에서 달려 나오더니 구니노미야가 탄 무개차(無蓋車) 위로 순식간에 뛰어올랐다. 청년은 독을 바른 단검으로 일격을 가하려 했지만 구니노미야의 곁을 지키던 경호관에게 가로막혔다. 놀란 운전기가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이 멀어지자 청년은 손에 쥔 단검을 구니노미야를 향해 힘껏 던졌다.

날아간 단검은 구니노미야의 상체를 스쳐 지났다. 구니노미야는 찰과상을 입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듯했지만 이로부터 8개월 만인 이듬해 1월 복막염으로 사망하게 된다.

###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 큰 획을 긋는 엄청난 거사로 평가돼”

청년은 현장에서 군중들을 향해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단지 조국 대만을 위해 복수를 한 것이다.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친 뒤 일본 군경에게 체포됐다. 당시 스물셋이던 청년. 그가 바로 한국 독립운동의 '4대 의사' 중 한 명으로 손꼽히지만, 그간 우리나라에서조차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한 조명하(1905~1928년) 의사다.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처럼 잘 알려지지는 못했지만 조 의사의 구니노미야 척살(刺殺) 시도는 당시 일본을 큰 충격에 빠뜨리고 대만을 뒤흔든 일대 사건이었다. '친왕(親王) 전하'라고 불리던 구니노미야는 일본이 신성시하던 '황족'의 일원이자 히로히토 일왕의 장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 군부와 정계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실력자였다. 또 192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어서는 한국과 대만에서 독립운동의 열기가 점차 약화하는 가운데 일본은 '문화 통치'를 통해 안정적인 식민지 지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자부하던 터였다. 따라서 조 의사의 ‘타이중 의거’는 일제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사건 직후 대만에서는 휴교령이 내려진 가운데 한동안 가무를 포함한 일체의 문화 활동이 금지됐다. 일본 정부는 민심 동요를 우려해 일본과 대만, 조선에서 한 달간 조 의사 의거 관련 보도를 일절 금지하는 보도 통제에 나서기도 했다. ‘타이중 의거’ 여파로 대만 총독이 경질되는 사태로까지 이어진 것은 한국의 의열 투쟁 사상 전례가 없는 결과이기도 했다.

조명하의사연구회 회원인 김상호 대만 슈핑(修平)과기대 교수는 “구니노미야의 일본 내 위상, 일본이 받은 충격에 비춰볼 때 조 의사의 의거는 우리 독립운동사에 큰 획을 긋는 엄청난 거사로 평가된다”며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과 더불어 ‘4대 의사’로 평가받아야 마땅하지만 의거지가 일본이나 중국 본토가 아닌 대만이라는 점에서 그간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측면이 있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임시정부 외무부장 등을 지낸 조소앙이 쓴 독립운동가 공적 기록인 유방집(遺芳集) 등 자료에 따르면 조 의사는 황해도 송화군의 빈한한 집안에서 태어나 보통학교만을 졸업했지만, 독학으로 여러 외국어를 익히고 1926년 신천군의 서기로 채용될 정도로 명석한 청년이었다. 식민 체제에 순응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였지만 수개월 만에 군 서기직을 견어차고 갓 태어난 아들과 부인을 고국에 남겨둔 채 일본을 거쳐 대만으로 건너가 목숨을 버릴 각오로 의거에 나섰다. 유방집은 조국을 떠나던 조 의사의 심경을 이렇게 기록한다. “신천군 말단으로 봉직하며 더 이상 적들의 압력에 견딜 수 없자 과감하게 적의 수뇌를 암살할 것을 결심하고 1926년 홀연히 오사카로 떠났다.” 의거 직후 현장에서 붙잡힌 조 의사는 타이중 경찰서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 체포 직후 찍힌 사진을 보면 그의 얼굴이 퉁퉁 부어 있어 체포 및 조사 과정에서 심한 구타를 당했음을 짐작케 한다.

조 의사는 이후 타이베이(台北)형무소로 옮겨지고 나서 ‘항족 위해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1928년 10월 10일 오전 10시, 조 의사는 타이베이형무소에서 순국해 스물셋의 불꽃 같은 짧은 삶을 마감하게 된다. 그는 사형 집행 전 형무소 관리들에게 “나는 이미 삼한(三韓)의 원수를 갚았노라. 더 남길 말이 없다. 단지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울 따름이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 조 의사 후손 “대만 관광지 갈 때 잠깐만 할아버지 생각해 줬으면”

타이중의 민간 역사학자 천연빈(陳彥斌)씨는 “똑같이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한국인들은 이를 부득 부득 갈 정도로 분노했고 조명하 의사는 심지어 목숨을 내놓고 구니노미야를 황천으로 보내려 했다”며 “존경스러운 일로 우리 대만인들이 깊이 생각할 가치가 있다”라고 말했다. 조 의사의 장손인 조경환 씨는 “할아버지께서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의사이신데도 그간 한국에서 잘 기억되지 못했는데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억울하실까 하는 생각이 부쩍 든다”며 “꽃보다 할배’ 방송 이후로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대만을 찾아가는데 관광지나 맛집을 찾아가는 길에 잠깐만이라도 할아버지를 생각해준다면 더 바랄 일이 없다”고 말했다. [\[참\]](#)

1. 조 의사가 구니노미야 구니요시 육군 대장 처살을 시도했던 옛 타이중 주 도서관(사진 속 붉은 벽돌 건물) 앞 사거리. 조명하의사연구회 회원인 김상호 대만 슈핑(修平)과기대 교수가 손으로 조 의사가 의거 직전 서 있던 장소를 가리키고 있다.
2. 대만 타이베이 시 한국학교 교정에 새로 설치된 조 의사 동상. 앞에 선 이는 조 의사의 손자 조경환 씨.
3. 조 의사가 순국한 옛 타이베이형무소 벽.
4. 조 의사가 구니노미야 구니요시에게 던졌던 단도 사진. 이 사진은 국립대만도서관의 근대 도서 수장고에 보관된 1928년 발행 도서에 수록되어 있다.



美 캘리포니아 주  
한글날 제정 산파 역할 한  
박동우 씨

## “해외 최초 한글날 기념일로... 가슴 벅찬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올해부터 10월 9일을 ‘한글날’(Hangul Day)로 제정하는 결의안(ACR 109)을 지난 9월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국에서 소수 민족의 언어를 별도의 기념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3선 의원인 새런 퀴크-실바(민주) 의원실에서 일하는 박동우(66) 보좌관이 한글날 제정의 ‘산파’ 역할을 맡았다. 박 보좌관은 한글날을 하루 앞둔 10월 8일 “해외에서 최초로 역사적인 한글날 제정 결의안을 통과시키다니 가슴이 벅차오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 보좌관은 재외동포재단 초청으로 8월 말 한국을 찾았을 때 지하철 5호선을 타고 광화문에 갔다고 전했다. 지나가던 행인들의 시선에 아랑곳없이 광화문 광장에 넘죽 엮드려 세종대왕에게 큰절을 올렸다. 그리고는 “제발 캘리포니아에서 한글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빌었다. 또 하나의 큰 힘은 한인 동포들의 정성 어린 편지였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지난 9월까지 접수된 한인 동포들의 편지가 무려 2천713통이었다고 박 보좌관은 말했다.

산더미처럼 수북이 쌓인 편지를 발신 주소를 보고 일일이 분류했다. 새크라멘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 오렌지카운티 등 각지에서 온 편지를 찾아 해당 지역구 의원실로 직접 전달했다. 상원 40명, 하원 80명 주 의원들에게 빠짐없이 편지가 전해졌고 그 결과는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통과되는 개가로 이어졌다.

그는 “미국에서 모든 정치는 풀뿌리이고 지역이라고 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미국 의원들이 한인사회의 단합된 힘에 놀랐을 것”이라고 했다. 통신회사 AT&T에서 26년간 일하고 퇴직한 그는 은행 간부를 거쳐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직속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위원(차관보급)을 지냈다. 2013년부터 퀴크-실바 의원실에서 일하고 있다. 박 보좌관은 “한글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리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 “40일간 ‘동해 찾기 캠페인’, 뉴질랜드 모든 동포가 이뤄낸 성과”

지난 7월 오uckland 한인회장에 취임한 변경숙(67) 씨는 뉴질랜드 한인사회의 ‘살아있는 역사’로 통한다. 1980년 이곳에 정착해 40년간 뉴질랜드 공공기관에서 한국인을 위한 각종 통역을 제공했고 한인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달려가 ‘해결사 역할’을 자처했다. 그가 뉴질랜드에 온 1980년은 뉴질랜드 내 한인 정식 이민이 시작된 첫해였다. 영국계 뉴질랜드인과 결혼해 3남 1녀를 키우며 남편과 함께 뉴질랜드 한국인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2005년 뉴질랜드 정부가 이 같은 공로를 인정해 ‘영국여왕공로훈장’(Queen’s Service Medal)을 수여하기도 했다. 현재 뉴질랜드에는 약 3만 명의 한인 동포가 살고 있는데 이 중 80%는 오uckland에 있다. 오uckland 한국인들의 절반 이상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이나 각 업종의 중간관리자(Manager)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차분한 오uckland 한인사회에 최근 큰 경사가 하나 생겼다. 지난해 오uckland 한인회가 진행한 ‘동해 찾기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동해 찾기 캠페인은 지난해 10월 17일 한 동포가 오uckland 전쟁 기념박물관에 있는 지도에 동해가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됐다는 사실을 오uckland 한인회에 알렸을 직후부터 시작했다.

오uckland 한인회와 주 오uckland 대한민국 분관은 다음 날 바로 박물관 담당자에게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해역을 일본해 대신 ‘동해 / 일본해’(East of Sea / Sea of Japan)로 병기해달라고 메일을 보냈다. 10월 말부터는 오uckland 한인회가 앞장서 뉴질랜드 전 동포를 대상으로 서명운동도 시작했다. 변 회장은 “전쟁 기념박물관 담당자들이 관련 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키위(뉴질랜드 현지인을 일컫는 말)들은 합리적이라 제도와 절차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잘못을 바로 인정하고 수정한다. 이 때문에 동해 병기도 빠르게 일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40일간 진행된 동해 찾기 캠페인은 뉴질랜드 모든 한인 동포가 이뤄낸 성과”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뉴질랜드 한인사회의 해결사,  
변경숙 오uckland 한인회장

## “배우고 싶다고,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느냐”

“한글을 왜 짜아찌아족에게 계속 가르치냐고요? 약속했으니까 지켜야죠.” 2010년 3월부터 인도네시아 부톤 섬에서 짜아찌아어를 한글교재로 가르쳐온 정덕영(58) 씨의 말이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20년간 근무하다 퇴직 후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에 한글과 한국어를 가르쳤다. 2006년 7월 KBS ‘우리말겨루기’에 출전해 우승할 정도로 실력을 갖췄고, 고려대에서 한국어 교육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0년 3월 짜아찌아족을 가르칠 교사로 훈민정음학회를 통해 처음으로 부톤 섬에 파견됐다. “언어에 대한 관심도 많고 모험심도 컸던 것 같습니다. 짜아찌아족을 가르칠 교사를 뽑는다고 하니 망설임 없이 지원했어요.”

그러나 2010년 12월 재정·행정적인 문제로 돌아와야 했고, 2012년 1월 부톤 섬에 세종학당이 설치돼 다시 파견됐으나 역시 재정적 문제 등으로 7개월 만에 철수했다. 결국, 2014년 3월 지인과 동창을 주축으로 ‘한국짜아찌아문화교류협회’를 창립해 같은 해 4월 다시 부톤 섬으로 돌아와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짜아찌아족이 한글을 부족어 표기법으로 채택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초기에는 중앙정부·지자체 등에서 문화원을 설립하고 도시개발을 해주겠다는 등 온갖 지원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진 것은 하나도 없다. 정 씨는 친인척과 지인, 협회 회원 등 350여 명의 소액 기부금으로 본인 체재비는 물론 교재비, 보조 교사 2~3명 월급 등 모든 활동비를 충당하고 있다. 정 씨는 “한글을 거기서 왜 가르치느냐”는 말을 한국에서는 들어봤지만, 이곳에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서로 배우고 싶다고,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처음 부톤 섬에 왔을 때 짜아찌아족 아이들에게 ‘한글이 너희의 글이 됐다’고 말하고 함께 여러 가지 꿈을 꿔다”며 “그렇게 희망을 심어줘 놓고 손바닥 뒤집듯 떠나버릴 수 없지 않느냐”라고 되물었다. 그는 “한국인 교사가 직접 가르치는 것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지인이 한글·한국어 교수법을 제대로 배워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짜아찌아족에게  
한글 가르치는 정덕영 씨



# 재외동포, 180개국에 750만 명... 국가별로 미·중·일 순으로 많아

외교부, 2019년 재외동포 현황 발표... 북미 이외 지역 입양동포 처음 추가

**외**교부가 2018년 말 기준으로 각국 자료를 취합해 최근 발표한 '2019 재외동포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외동포는 749만3천587명으로 조사 대상 193개국 가운데 180개국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 조사 때보다 1개국 늘었다. 지역별로는 동북아시아 328만6천363명, 북미 278만8천732명, 유럽 68만7천59명, 남아시아태평양 59만2천441명, 중남미 10만3천617명, 중동 2만4천498명, 아프리카 1만877명 순이다.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오래되고 국외 이주민이 많은 이탈리아, 이스라엘, 아일랜드도 한국처럼 동포가 세계 각지에 골고루 퍼져 있지는 않다. 우리보다 인구가 많고 해외 진출이 앞선 일본도 재외동포(약 410만 명)가 우리보다 적을 뿐 아니라 남북미에 집중돼 있다.

대한민국은 동포 수가 많고 나라도 다양한 만큼 이민의 사연도 제각각이다. 멕시코·쿠바 동포는 1905년 사기 광고에 속아 에네켄 농장에서 노예노동을 했던 한인들의 후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선조들은 1937년 스탈린에 의해 러시아 연해주에서 강제로 이주당했다. 1953년 정전 협정이 끝난 뒤 인도나 브라질 등 제3국을 택한 반공포로도 있고, 1960~70년대 정치적 박해를 피해 구미로 망명한 사례도 있다.

사연이 기구하기로는 낯선 나라에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 길러진 입양아를 빼놓을 수 없다. 북미 지역의 한인 입양동포는 약 12만 명이며, 유럽과 호주에는 4만7천506명이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재외동포 수가 2년 전보다 6만2천899명(0.85%) 증가했으나 북미 이외 지역의 해외 입양동포 통계가 이번에 처음 추가된 것을 고려하면 큰 변동은 없는 셈이다.

한민족이 세계 구석구석에 터전을 잡게 된 것은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이 남달랐기 때문이기도 하다. 스페인령 카나리아제도 라스팔마스의 동포(692명)는 대부분 원양어선 선원과 자녀다.



7월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세계한인입양인대회(KAA Gathering 2019)' 개최식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 오지나 카리브해 낙도에 사는 동포 가운데 상당수는 전도와 봉사의 사명을 띠고 파송된 선교사다.

재외동포가 많이 사는 나라는 미국(254만6천982명), 중국(246만1천386명), 일본(82만4천977명), 캐나다(24만1천750명), 우즈베키스탄(17만7천270명), 베트남(17만2천684명), 러시아(16만9천933명), 호주(16만7천331명), 카자흐스탄(10만9천923명), 필리핀(8만5천125명), 브라질(4만8천281명), 독일(4만4천864명), 영국(4만770명), 뉴질랜드(3만8천114명), 프랑스(2만9천167명)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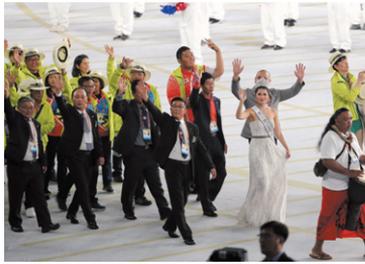
중국은 동포 수가 8만6천640명(3.4%) 감소해 5만4천730명(2.2%) 증가한 미국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사드 배치 영향으로 한중관계가 나빠지면서 중국 거주 재외국민이 줄어든 데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환 동포(조선족)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 기업의 투자가 활발한 베트남은 4만8천22명(38.7%)이나 증가해 두 계단 상승한 6위에 랭크됐다. **▶**

# “전국체전 100회를 맞아 감회가 새롭습니다”

## 재외동포 선수단 이끈 윤만영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 회장

**전**국체전 개막식 때마다 눈길을 끈 재외동포 선수단 입장은 100회를 맞아 올해 전국체전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10월 4일 오후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전국체전 개회식에서 재외동포 선수단이 입장하자 관중들은 박수로 뜨겁게 환영했다. 특히 괌,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선수단은 민속춤을 추며 입장해 특색있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재외동포 선수단은 대한체육회가 인증 지정한 18개국에 한해 전국체전 참가 자격이 있다. 올해는 9개 종목에 1천800여 명이 참가했다. 작년보다 30% 정도가 늘어난 규모다.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등 18개 전국체전 참가국에는 대한체육회가 있고 이를 총괄 대표하는 기관이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이하 세총)이다.

윤만영(59) 세총 회장은 “전국체전 100회를 맞아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10월 10일 서울 중구 PJ호텔에 차려진 상환실에서 전국체전 폐막식 행사 준비로 바쁜 윤 회장을 만났다. 세총 활동을 묻자 윤 회장은 “민간외교 차원에서 세총에 소속된 각 나라 대한체육회 임원들이 작년 10월 38명, 올해 9월 24명 평양을 방문했다. 북한 체육성 관계자와 매년 한 차례씩 체육 교류를 갖자는 협약을 쓰고 왔다. 내년 4월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마라톤대회에 가입적 많은 선수가 참여하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회원국에서 국제체육행사가 열리면 선수단을 지원하는 일도 세총의 중요한 활동 가운데 하나이다. 지난해 8월 인도네시아 팔렘방 아시안게임 당시 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는 응원단을 구성해 남북한 선수단을 응원했다. 이번 전국체전 기간 이기흥 대한



10월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재외 동포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다.



윤만영 세총 회장이 10월 8일 해외동포선수단 및 독립유공자 후손 환영 만찬에서 필리핀 다문화가정 출신 차세대 체육 유망주 김하나 양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 만찬은 박원순 서울시장 초청으로 강남구 더케이 호텔에서 열렸다.

체육회장 초청 만찬에서는 최상영 제일본대 한체육회장이 내년 도쿄올림픽 때 한국선수단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윤 회장은 전했다.

### ‘망고장학회’ 만들어 한국 내 필리핀 다문화가정 자녀에 장학금 지원

윤 회장은 18년 전 사업차 필리핀 마닐라로 건너가 현재 LED 가로등 조립공장을 운영하는 동포 사업가이다. 필리핀 대한체육회장을 5년째 맡고 있고, 임기 2년의 세총 회장을 연임해 3년째이다. 윤 회장은 전국체전 때마다 경기와는 별도로 장학금 수여 행사로 분주하다.

장학금은 전국체전 개최도시의 추천을 받아 개최도시에 거주하는 필리핀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주고 있다. 윤 회장은 이 장학금을 수여하는 ‘망고장학회’ 제정 과정에서 산파 역할을 했다. 망고장학회는 필리핀의 한인총연합회 역대 회장과 현지 대한체육회 임원들로 이뤄진 장학회 위원들이 적립한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7회째인 올해 망고장학회 전달식은 10월 3일 강남구 S컨벤션에서 장관급인 필리핀 정부 해외동포위원장과 이자스민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울시가 추천한 다문화가정 출신 역도 유망주 여중학생 김하나 양에게 매월 20만 원 씩 1년간 지급하는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이와 별도로 세총은 김 양에게 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윤 회장은 “체육회장 임기가 끝난 후에도 필리핀 한인사회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창**

## 전 세계 동포사회, 개천절 · ‘세계 한인의 날’ 맞아 축하 행사

뉴욕 · LA · 상파울루 · 로마 등지서 퍼레이드 펼치고 리셉션 열어



뉴욕 맨해튼에서 펼쳐진 코리아퍼레이드와 '비빔밥 퍼포먼스'.



개천절과 ‘세계한인의날’을 맞아 전 세계 동포사회에서는 다양한 축하 행사가 열렸다. ‘세계 한인의 날’인 10월 5일,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는 ‘코리아 퍼레이드 및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열렸다.

한국 문화를 알리는 코리아 퍼레이드는 이날 낮 맨해튼 미드타운 27~38번가 구간에서 진행됐다. 특히 올해 행사에 참석한 백제문화추진위원회가 옛 백제문화를 소개해 뉴욕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고 뉴욕한인회는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한인타운이 위치한 맨해튼 32번가에서는 페스티벌이 진행됐다. K팝 공연을 비롯해 전통무용, 초대형 비빔밥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독도’와 ‘동해’의 올바른 표기를 알리는 홍보부스도 운영됐다.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김완중 총영사)은 제4351주년 개천절을 맞아 10월 3일 저녁 LA 시내 총영사 관저에서 국경일 리셉션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LA에서 활동하는 한인 정·관계 인사와 외교사절, 미군 참전용사, 학계·문화계 인사, 각종 단체장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LA 총영사관은 “한미동맹에 기초한 공고한 양국 관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현지 주류사회와 우리 동포사회 간 소통과 협력에 기여하고자 국경일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브라질 상파울루 시립극장에서는 10월 4일 저녁 제4351주년 개천절을 맞아 국경일 리셉션이 열렸다. 한-브라질 수교 60주

년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은 리셉션에는 상파울루 주 정부와 미국·독일을 비롯한 각국 총영사관 관계자, 문화예술인, 한인 동포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김학유 상파울루 총영사는 “수교 60주년을 맞아 유서 깊은 시립극장에서 국경일 기념행사를 하게 돼 의미가 깊다”면서 “한국은 경제·외교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브라질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은 미래 동반자로서 우정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에서도 10월 3일 개천절을 맞아 한국대사관(권희석 대사)이 로마 시내 호텔에서 국경일 리셉션을 열었다. 행사에는 만리오 디 스테파노 이탈리아 외무부 차관과 최동위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사무총장 등을 비롯해 주요 외교사절, 학계·문화계 인사, 한인 동포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권 대사는 환영사에서 “한국과 이탈리아는 수교 이후 135년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이탈리아는 한국에 가장 오래된 동맹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하고 “앞으로도 양국 관계가 더 확대·발전하도록 지속해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테파노 차관도 인사말에서 “정치·경제·문화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양국 관계가 작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이탈리아 방문으로 한층 더 긴밀해졌다”며 “두 나라의 미래 우호 관계가 더 탄탄해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공식 행사에 이어 열린 만찬에서는 불고기와 김밥, 김치, 잡채 등의 한국 음식과 전통 술이 제공돼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 월드옥타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라스베이거스서 개막… 1천여 명 참가 문 대통령 “동포 경제인 한반도에서 더 많은 기회 갖도록 평화경제에 노력”



10월 14일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월드옥타 주최 제24차 세계한인 경제인대회 개최식.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가 개최하는 ‘제24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10월 14~1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국내 중소기업의 미국 수출을 돕고 한인 경제인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비즈니스 교류의 자리로,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와 공동으로 마련했다. 개회식에는 하용화 회장과 김성학 이사장, 남기학 수석부회장 등 집행부와 장우상·조병태·이영현·서진형·고석화·김우재·박기출 명예회장, 각국 지회장 등 월드옥타 회원 700여 명과 국내 65개 중소기업 대표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완중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가 대독한 축하 메시지에서 “재외동포 경제단체 지원을 확대해 한인 경제인의 헌신에 보답하겠다”며 “분단과 대립으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재외동포 경제인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더 많은 기회가 한반도에서 주어지도록 평화경제 달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회는 미국에서 개최되는 만큼 중소기업의 대미수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통해 기업이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모의 마음으로 모국의 청년에게 일자리와 희망을 주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동포 2~3세들을 위한 교육에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며 “한국은 한인 경제인과 함께, 힘있게, 자랑스럽게 발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내년 총선서 750만 재외동포 몫 비례대표 의원 배분해야” 세계한인언론인협회 · 한인네트워크 주최 포럼, 재외동포 국회 진출 논의



‘재외동포 비례대표 선출 중요성’ 관련 포럼. (사진 ·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제공)

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750만 재외동포 목소리를 반영할 비례대표 의원이 최소 9명은 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계한인언론인협회(회장 전용창)와 세계한인네트워크(회장 김영근) 공동 주최로 10월 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럼에서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는 ‘선거제도 개편안과 재외동포 비례대표 선출 중요성’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7월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선거제 개편안은 비례대표를 기존 47명에서 75명으로 28명을 늘리는 내용이라며 이를 적용할 경우 재외동포 비례대표는 인구 비율 대비(5천만 명 대(對) 750만 명) 9.78명이 돼야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안 처리 과정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의석 배분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기에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해외 지역구(재외국민 250만 명 기준)를 설치해 일정 의석수를 배정하도록 만드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윤주 텍사스 한국일보 발행인은 “정치인들은 틈만 나면 동포사회를 방문해 비례대표 의원직을 주겠다고 공약했는데 현재 750만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대변할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이라며 “글로벌 한국인의 역량 강화와 이익을 견인하는 재외동포 비례대표는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 시인 김소월 흉상 우크라이나 국립대에 건립... “문화교류 증진 계기”

“한국 문학인의 기념비가 우크라이나에 세워진 건 처음”



김소월 시인 흉상 제막식.(사진·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 제공)

동유럽 국가 우크라이나의 최고 명문대학에 시인 김소월의 흉상이 건립됐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있는 ‘타라스 셰브첸코’ 국립대학 식물원에 김소월(1902-1934) 시인의 흉상이 설치됐으며, 동상 제막식이 10월 10일 열렸다고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대사관이 밝혔다. 한국 문학인의 기념비가 우크라이나에 세워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동상 건립은 우크라이나 대사를 지낸 허승철 고려대 교수의 기획으로, 문영기 한국선의재단 이사장이 후원해 성사됐다. 동상 제작은 우크라이나의 유명 조각가 미하일 이센코가 맡았으며 셰브첸코 국립대는 부지를 제공했다. 셰브첸코 국립대는 1833년에 설립돼 현재까지 수많은 정치·경제·인문분야 지도자를 배출한 우크라이나 최고의 종합대학으로 현재 약 3만 명의 재학생이 수학하고 있다.

김소월의 작품은 셰브첸코 국립대 이반 본다렌코 교수가 번역집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소개한 바 있다. 시인의 흉상 건립은 우크라이나 내에 한국문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양국 문학 교류를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상 제막식에는 권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과 허승철 교수, 레오니트 구베르스키 셰브첸코 국립대 총장 등을 비롯해 양국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권 대사는 축사에서 “셰브첸코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존경받는 시인이자 작가이고, 오늘 세워진 동상의 주인공 김소월은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시인 가운데 한 분”이라면서 “한국의 위대한 문학인을 소개하는 이 뜻깊은 행사를 계기로, 양국 간 문학 분야에서의 교류가 더욱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K팝·韓문화 코스’, 美 LA 통합교육구서 정식교과목 채택

공립학교 최초로 K팝 교과 채택... 한인 2·3세 정체성 확립에 큰 도움 기대



K팝·한국문화 코스 정식교과목 채택한 LA 교육행정가들.(사진·LA한국교육원 제공)

‘K팝·한국문화 코스’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LAUSD)에서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됐다. 10월 2일 LA한국교육원(원장 오승걸)에 따르면 K팝·한국문화 코스가 지난 7월 LAUSD에 의해 교육구 내 공립학교 정식 교과목으로 승인받았고 9월 27일 LA 시내에서 일선 학교 및 교육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코스 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는 세계한인교육자연합회(IKEN·회장 김성순)가 주관했으며 LAUSD 변지애 장학관, 애너하임 통합교육구 르네 브라이언트 디렉터 등 교육행정가·교장·교사 40여 명이 참석했다.

K팝을 포함한 코스가 미국의 공립학교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코스는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K팝, K뷰티, K패션, K드라마, K푸드를 비롯해 한국 이민사, 미국 이민자의 꿈, 한국의 경제성장, 한국문화, 한인 청소년의 정체성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LAUSD 버질중학교, 하시엔다 시다레인중학교, 애너하임 옥스퍼드아카데미, 글렌데일 후버고등학교 등 8개 학교가 2020년 봄 학기부터 K팝·한국문화 코스를 개설할 예정이다. LA한국교육원은 가을 학기 동안 교안 작성과 커리큘럼 준비를 위해 이 코스에 참여하는 학교에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 코스 개설을 통해 한인 2·3세들이 공교육 시스템 아래에서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한인 교육단체 관계자들은 기대했다. [▶](#)



**“한·일 관계 악화로 日 정부 재일동포 사업에 규제 가할 수 있어”**

해외교포문제연구소(이사장 이구홍)는 10월 17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2019 교포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장태한 미국 UC리버사이드대학 교수가 '3·1운동과 미주 한인사회'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고 이어 권용대 재외동포재단 자문위원이 '일본에서 본 한일 간의 갈등과 그 여파'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권 자문위원은 “한·일 관계의 악화로 일본 정부가 재일동포의 주력 사업인 빠칭코, 요식업, 금융업에 규제를 가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내년 8월 한·러 인사 500여 명 모여 미래 방향 모색**

한국-러시아 수교 30주년과 광복 75주년을 맞아 내년 8월 14~29일 러시아에서 양국 정치인·학자·기업인·문화예술인·고려인 지도자 등 500여 명이 모여 한·러 관계의 미래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한다. 국제코리아재단측에서는 “세계코리아포럼 20주년을 맞는 모스크바 행사에는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의 고려인도 합류할 예정”이라며 “한·러 간 공공외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베트남 진출 韓 중소기업들, 한인 동포 청소년 학비 지원**

한국중소기업중앙회(KBIZ) 베트남 하노이연합회는 하노이 한국국제학교(교장 최광익)에 다니는 청소년 가운데 등록금을 낼 형편이 못 되는 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하기 위한 장학 후원단을 발족했다고 10월 2일 밝혔다. 후원단은 김성권 KBIZ 하노이연합회 회장 등 5명이 쾌척한 1억3천만 동(약 673만 원)을 모았고, 10월 26~27일 하노이 한국국제학교에서 자선 바자를 열어 10억 동(5천180만 원)의 장학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재미 동포들 투자한 메트로시티은행 나스닥 상장**

미국 애틀랜타 지역 동포들이 투자한 자본으로 성장한 메트로시티은행(회장 백낙영·행장 김화생)이 10월 8일 뉴욕증시 나스닥에 상장됐다. 백 회장은 증권거래소 개장을 알리는 ‘오픈링 벨’ 행사에 참석해 타종했다. 그는 나스닥 상장에 대해 “주식 유동성이 커졌고, 월스트리트의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내 한인 은행의 나스닥 상장은뱅크오브호프, 한미은행, 퍼시픽 시티뱅크, 오픈뱅크에 이어 이번이 5번째다.

**美 워싱턴 D.C에서 한인 리더십 콘퍼런스 열린다**

재미동포 정치력 신장에 앞장서는 미주한인위원회(CKA·이사장 폴 김)는 11월 1~2일 워싱턴 D.C에서 '2019 전국 한인 리더십 콘퍼런스'를 연다. 콘퍼런스에는 제리 강 캘리포니아대 LA캠퍼스(UCLA) 부총장, 송 리처드슨 UC 어바인 법대 학장, 기 박 하버드 의과대 전문의 등, 동포 1~2세 지도자들이 연사로 참여한다. 이들은 11월 1일에는 워싱턴 DC 대형 로펌 코빙턴 앤드 발링에서, 2일에는 조지워싱턴 대학에서 리더십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한다.



**美 연방하원 한국전쟁 종전선언 결의안 지지 확산... 39명째 서명**

미국 연방하원 드와이트 에번스(민주·펜실베이니아) 의원이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결의안에 서명했다고 재미 한인정치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대표 최광철)이 10월 16일 밝혔다. 이로써 결의안 서명 의원은 39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브래드 서번 하원 아·태 소위 위원장 10월 12일 KAPAC 갈라(사진) 기조연설에서 “지금은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야 할 때이며 정전협정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맺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인회·한글학교 등 동포단체 행사를 소개합니다. 널리 알리고 싶은 소식을 이메일(proc@okf.or.kr)로 보내주세요

# ‘봉오동 전투’ 승리로 이끈 ‘백두산 호랑이’ 홍범도 장군

## 고려인 강제이주 정책으로 카자흐스탄에서 말년 보내

**홍**범도 장군(1868~1943)은 일본군에게는 ‘하늘을 나는 장군’이라고 불릴 정도로 두려운 존재였고, 동포들에게는 ‘백두산 호랑이’로 불릴 만큼 추앙 받았다. 독립운동사의 가장 빛나는 업적의 하나인 봉오동 전투는 그의 주도로 승리했다. 청산리 전투에도 참전해 큰 몫을 담당했다. 평양에서 반농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7일 만에 어머니를 여의고 8살 때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 작은아버지 집에 살다가 남의 집 머슴살이도 했다. 15살 때 평안감영의 나팔수로 입대했으나 군대의 비리를 목격하고 병영을 뛰쳐나온다. 그 후 제지공장 노동자와 금강산 신계사 승려를 거쳐, 산짐승을 잡는 포수 노릇도 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과 이듬해 을미사변을 계기로 항일운동에 뛰어들기로 결심한 그는 1895년 11월 강원도에서 포수와 빈농 40여 명을 규합해 의병부대를 꾸렸다. 1904년 가을에는 함경도 북청의 일진회 사무실을 습격했고, 1907년과 1908년에는 함경도 일대에서 수십 차례 게릴라전을 벌여 일본 군경을 무찔렀다.

1908년 11월 러시아 연해주로 망명해 국내 진공작전을 펼치고 1910년 6월 우수리스크에서 결성된 13도의군에 참여했다. 1919년 5월 대한독립군을 창설한 뒤 8월 함경도 해산진의 일본군 수비대를 습격해 용맹을 떨쳤다. 3·1운동 후 만주와 연해주에서 편성된 독립군 부대가 벌인



일본군에게 두려운 존재, 동포들에게는 추앙받는 인물이었던 홍범도 장군(왼쪽).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의 홍범도 기념공원 모습.

최초의 전투였다. 이후로도 혁혁한 전공을 올려 기세가 하늘을 찔렀으나 병참과 무기 부족에 시달리는 고민을 해결하고자 대한국민회 산하로 들어가 대한북로독군부의 사령관을 맡았다.

1920년 6월에는 일본군 19사단 예하 추격대대를 궤멸시킨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따르면 일본군 전사자가 157명으로 되어 있지만, 홍범도 일지에는 일본군 310명을 사살한 것으로 적혀 있다. 독립군 사망자는 4명에 불과했다. 10월 보복전에 나선 일본군 대부대를 김좌진의 북로군정서와 합세해 무찌른 것이 청산리 전투다

홍범도는 1923년 군복을 벗은 뒤 연해주 집단농장에서 일하던 중 1937년 11월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로 강제이주됐다. 블라디보스토크의 고려극장도 함께 이곳

으로 옮겨왔는데 홍범도는 밤에는 고려극장 수위, 낮에는 정미소 노동자로 일하며 고려인으로서 말년을 지냈다. 두만강 일대를 호령하며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그도 세월은 이기지 못해 조국의 광복을 목전에 두고 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정부는 1962년에 와서야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대한민국 해군은 지난해 4월 진수한 1천800t급 잠수함을 홍범도함으로 명명했다.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붙인 잠수함 이름으로는 안중근·김좌진·윤봉길·유관순에 이어 다섯 번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희망한다고 밝혔고, 카자흐스탄 정부측은 홍장군의 원만한 유해 봉환을 위한 협조를 약속했다. [\[장\]](#)

# 재불 한인 1세대의 애달픈 이야기 다룬 다큐 佛 전쟁영화제 출품

## 재불동포 다큐 제작자 김효찬 감독의 '쉬프와 한국인의 기억들'

100년 전 프랑스로 이주해 1세대  
구리면서도 임시정부를 도운 한인 1세대  
와 그 후손들의 이야기가 스크린으로 옮겨져  
프랑스의 국제 영화제에 출품됐다.  
재불 동포 다큐멘터리 제작자 김효찬 감독이  
연출한 '쉬프와 한국인의 기억들'  
(Suippes et ses memoires coreennes)  
이 프랑스 상파뉴 지방에서 열리고 있는  
제7회 전쟁영화제(War on screen)의 특별  
세션에 공식 초청된 것이다.

1시간 분량의 '쉬프와 한국인의 기억들'은 1919년 프랑스 중부 쉬프에 이주한  
한국인 1세대 한인 노동자들의 자손인 세  
가족을 통해 일제 강점기 한인의 이주 역  
사를 다룬 다큐멘터리로서, 10월 4일 저녁  
상파뉴 지방의 소도시 쉬프에서 시사회가  
열렸다. 이 작품은 올해 광복절에  
독립운동 공적이 공식 인정돼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 재불 독립운동가 홍재하  
(1898~1960) 선생의 차남 장자크 흥푸  
안 씨의 사연과 함께, 재불 한인 1세대 이  
용제 선생과 그 후손들의 가족사, 쉬프에  
서 한인들이 살던 마을을 찾아가는 여정  
등의 이야기를 다뤘다.

프랑스 한인 1세대는 1919년 3·1 운동을  
전후로 일제의 압제를 피해 만주와 연  
해주, 북해를 거쳐 영국 에든버러까지 흘러  
들어 갔다가, 임시정부 파리위원회 서  
기장 황기환의 끈질긴 노력 끝에 프랑스  
로 들어온 재불동포 1세대 37명이다.



다큐 '쉬프와 한국인의 기억들'을 촬영  
중인 김효찬 감독(가운데)과 재불 독립  
운동가 홍재하 선생의 차남 장자크 흥  
푸안 씨.(사진·김효찬 감독 제공)

이들은 1차대전 당시 독일과 영·불 연  
합군의 격전이 벌어진 마른 지방의 쉬프  
에서 시신 안치와 전사자 묘지 조성 등  
고된 노동으로 생계를 꾸리면서도, 십시  
일반(十匙一飯) 돈을 모아 임시정부 파리  
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1920년 3월  
1일에는 쉬프에서 3·1운동 1주년 기념식  
을 열기도 했다.

프랑스 한인 1세대의 이야기는 재불 독  
립운동사 연구자 이장규 씨(파리 7대학  
박사과정)와 한불 독립운동사학회 '리베  
르타스'(회장 마리 오랑주 리베라산 파리  
7대학 교수)의 연구로 작년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다. 홍재하 선생의 차남 장자크 씨  
의 사연과 그가 소장해온 임시정부 관련  
자료들은 재불동포 김성영·송은혜 씨 부  
부의 도움으로 한국의 학계에서 활발한  
재조명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성과를 기  
반으로 김 감독은 끈질긴 현장 취재를 통  
해 숨겨진 이야기들을 발굴해 카메라에  
담아냄으로써 의미를 더했다.

'쉬프와 한국인의 기억들'은 상파뉴 전  
쟁영화제의 특별세션 부문에 출품됐다.  
특별세션에는 '반지의 제왕'을 연출한 거  
장 피터 잭슨 감독의 1차대전 다큐 '그들  
은 늙지 않을 것이다'(They Shall Not  
Grow Old)도 초청됐다. 전쟁영화제는 1  
차대전의 격전지였던 프랑스 상파뉴 지방  
에서 2013년 출범한 국제 영화제로, 전쟁  
과 역사, 분쟁 이슈를 다룬 영화와 다큐  
의 축제 한마당이다. 매년 100여 편의 영  
화와 다큐가 초청돼, 영화와 전쟁을 주제  
로 한 세미나와 함께 다양한 논의가 이뤄  
지는 장(場)으로 자리 잡았다.

김효찬 감독은 "쉬프의 한인들은 가족  
이 제일 먼저였다. 특히 엄격한 듯하면서도  
한없이 자상한 한국의 아버지들이 담  
겨 있다."면서 "모두 눈을 감는 순간까지  
돌아가지 못한 고국을 그리워했던 애달픈  
디아스포라를 다큐에 담으려 했다"고 말  
했다. [\[장\]](#)

김용래 연합뉴스 파리 특파원

## 3·1운동 정신과 일본 속의 나

남명지(일본)

나는 한국인 아버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16년 동안 자라왔다. 완전한 한국인이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동경에 있는 한국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에 관한 문화를 많이 접하게 되었고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다 보니 한국에 살아 본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을 사랑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여긴다.

한국의 역사를 미디어에서 접할 기회가 없는 환경에서 자란 나는 부끄럽게도 중학생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3·1운동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다. 매년 3월 1일에 학교에서 열리는 행사와 한국 뉴스를 보면서 왜 3·1운동이 일어났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3월 1일에 특별한 의미를 두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 궁금함이 생길 무렵, 마침 나는 한국사 수업에서 3·1 독립운동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제야 근대에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본에 의한 강제적 지배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고통이었으며, 국가를 잃었다는 슬픔은 더 큰 고통이자 슬픔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고통과 슬픔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 온 국민은 모여서 크고 작은 독립운동을 벌였고, 그중에서도 3·1운동은 전국민적인 독립운동의 시발점이다. 유관순 열사는 독립 만세를 외쳤다는 이유로 형무소에 갇혔다가 꽃다운 나이에 순국했다고 한다. 당시 16살로 나와 같은 나이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3·1운동에 참여하신 모든 분 덕분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고 우리가 있단다.” 3·1운동을 설명하시던 한국사 선생님의 눈은 붉어져 있었고 그동안 한국 역사를 몰랐던 부끄러운 나 자신 또한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도 내가 사랑하는 우리나라의 존재도 3·1운동에서 투쟁하신 조상들의 노고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

고등학교 2학년, 나는 처음으로 일본사의 교과서를 접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교과서 속에는 하나 익숙한 단어가 적혀져 있었다. 일본 교과서에서도 다루어진 3·1운동에 관한 내용은 중학생 때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인 줄만 알았다. 그러나 내가 전에 배운 내용과는 너무 다른 설명이 담겨 있었다. “고종 사망 때문에 일어난 운동” “일본인 사상자가 생긴 운동”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실제 일본이 행한 비윤리적인 행동들은 적혀져 있지 않았다. 일본 때문에 일어난 독립운동을 모두 한국인의 오해와 돌발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인 일본을 보며 나는 화가 치솟았다. 그리고 그 당시 일에 사과조차 하지 않은 일본이 미워 보였다.

그 후에 나는 두 나라의 교과서를 비교하며 읽어보았다. 그 당시 직접 3·1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나는 이 운동의 진실을 알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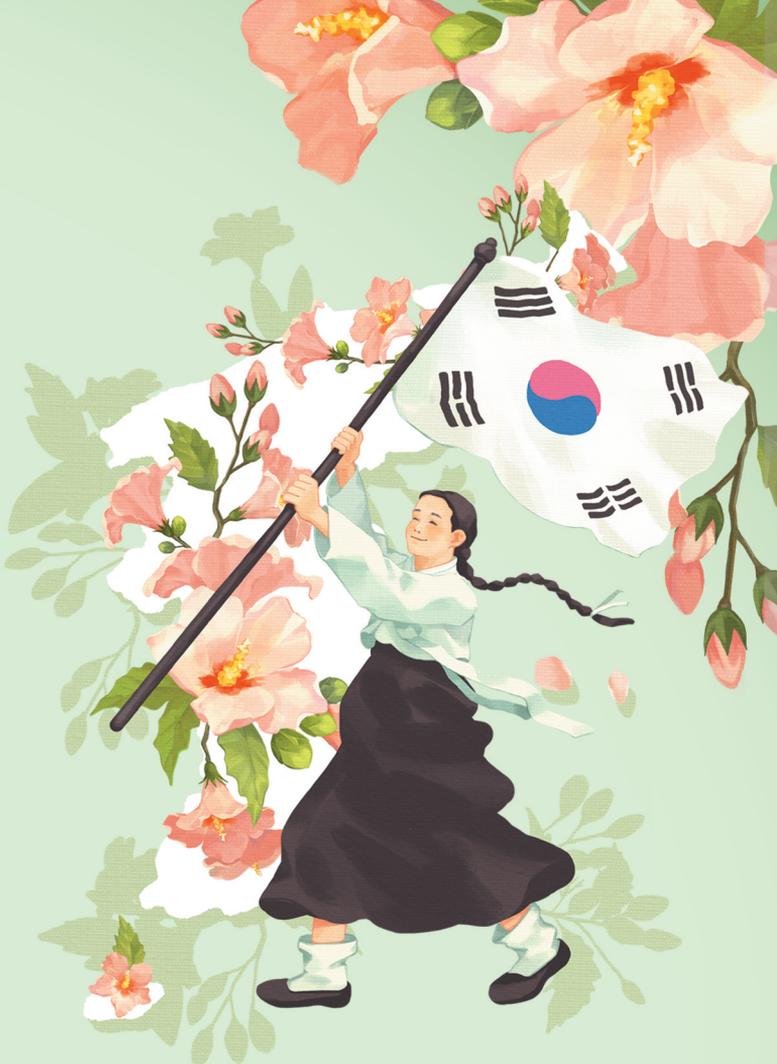
3·1운동은 ‘March 1st movement’이라는 명칭으로 일본과 한국사람 말고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있다. 제3국에서 본 3·1운동은 어떤 모습일까. 찾아본 결과, 많은 웹사이트에서의 3·1운동 설명은 한국역사 교과서와 별다름이 없었다. “일본에서부터의 독립”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어떤 사이트에서는 피해자 수부터 그 당시의 사진까지 공개되어있었다. 나는 이것들을 보며 일본이 큰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저지른 악질적인 행위를 여전히 숨기고 있다. 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세계 모든 사람이 이 운동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일본사람들이 3·1운동에 대해 배운 주관적인 입장 뒤에 늘 숨겨져 있는 자신의 나라가 저지른 행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일본과 한국, 두 나라가 3·1운동의 정확한 내용, 즉 객관적인 내용을 인정하며 서로에 대한 악감정이 담긴 교과서나 사이트를 고쳐나가면, 객관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악화되고 있는 한·일 관계도 조금씩 개선될 수 있다고 믿는다.

내 몸에는 두 나라의 피가 섞였다. 한국을 지배한 일본인의 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일본에 지배를 당한 한국인의 피. 3·1운동이라는 운동을 볼 때마다 마음 한곳이 아파진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3·1운동 때 행한 비윤리적인 행동과 폭력을 인정하기도 전에 많은 시민이 한국 교과서에 실린 3·1운동 설명이 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내가 알고 있고 배우고 있는 역사도 중립적이지 않고, 감정적일 수도 있다. 요즘 한·일 문제의 뉴스를 보면 서로의 감정만 섞어서 국민을 자극하는 것 같다. 내 생각엔 이런 감정적인 미디어는 올바른 역사를 배우는 우리 학생들에게 진정한 것을 모르게 하는 것 같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판단할 때는 항상 중립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라고 하신다. 나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배경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해 중립적



으로 공부할 생각이다. 그리고 일본이 이 운동에 대해 더 정확하게 알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게, 풀리지 않은 두 나라의 오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며 각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먼저 실천하려고 한다.

아직 객관적인 공부보다는 주관적인 생각이 먼저 앞선다. 아버지가 이야기했듯이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마인드로 접근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기초가 된 3·1운동은 나에게 한일 역사를 공부하고 실천하려는 마음가짐을 갖게 해주었다. 3·1운동에 목숨을 바친 조상님을 위해서라도 올바른 역사관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3·1운동의 의미가 왜곡되지 않도록, 사실에 호소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그 바탕 위에 한국과 일본 국민의 역사적 사실을 이어주는 가교가 되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한국인과 일본인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빨리 오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장**

## 젊은이여 세계를 누벼라! 글로벌 한상의 노하우 대공개

### 제18차 세계한상대회 앞두고 대전, 여수에서 한상CEO 특강

국내를 넘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싶은 청년들이라면 주목할 만한 특별한 특강이 펼쳐졌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며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고 있는 4인의 한상을 초청해 9월 27일부터 대전·전남 지역 고등학생과 대학생 대상으로 ‘한상CEO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대한민국 청춘이여! 세계를 꿈꿔라’라는 주제로 제18차 세계한상대회 개최를 알리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한상의 경험과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특강 연사로 나선 한상은 제18차 세계한상대회 대회장으로 있는 고상구 K&K트레이딩 회장이다. 9월 27일 열린 2019 대전신개념 일자리 축제에서 한상의 성공 철학을 들려줬다. 10월 21일에는 전남대 여수캠퍼스에 유럽의 대표 한상인 영산그룹 박종범 회장이 나섰다. 같은 날 순천대학교에서도 인도네시아에서 오피스 서비스 분야를 개척한 SUITE 김은미 대표가



왼쪽부터 고상구 회장, 박종범 회장, 김은미 대표, 김점배 회장.

강연했다. 청소년을 위한 특강도 진행됐다.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AL KAUS 김점배 회장이 여수 충무고등학교를 방문해 한상으로서 세계 진출 경험을 나누고 도전과 개척 정신을 알렸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미래의 주역들이 당당히 세계로 나아가 장차 해상왕 장보고를 비롯하여 서갑호(일본), 김종림(미국), 최재형(러시아) 등과 같은 한상의 꿈을 키워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고상구 제18차 세계한상대회장, ‘글로벌한상드림’에 1억 원 기부

제18차 세계한상대회 고상구 회장이 9월 25일 한상 사회공헌재단인 ‘글로벌한상드림’에 1억 원을 기부했다고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이 밝혔다. K&K글로벌 트레이딩 회장인 고상구 회장은 베트남 최대 한국식품 유통업체인 K-마켓을 운영하며 한상기업 최초로 베트남에서 100대 브랜드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전체 면적 2ha 규모의 복합물류센터 준공과 함께 한국 농식품 시장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한상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으로 시작된 글로벌한상드림은 모국의 차세대 인재육성과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고 있다.



9월 25일 외교센터에서 있는 글로벌한상드림 기부금 전달식. 왼쪽이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오른쪽은 고상구 회장.

2017년부터 현재까지 90여 명의 국내 차세대 인재에게 1억6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재외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은 “우리 한상의 경영철학이 담겨있는 나눔 DNA가 차세대 청년들에게 전해지고, 한상이 사회공헌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계속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한상드림은 초대 임원들이 3년 임기를 마침에 따라 신임 이사장과 임원을 선출하는 이사회와 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6년 설립된 글로벌한상드림은 현재까지 총 12억 원의 장학금을 모았으며 앞으로 기금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재외동포들은 애국자다



**박기석**

시공테크, 아이스크림 미디어,  
아이스크림 에듀 회장

재외동포들은 모두 애국자다. 그들만큼 한국이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 1977년 첫 해외출장 이후 40여 년간 해외를 많이 다녔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5년간 거주하기도 했다. 1979년으로 기억된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 친선 경기 목적으로 왔다. 경기장 한쪽은 사우디인들로 가득 찼고 한쪽은 우리 건설 근로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경기 시작 전 사우디 국가 다음 우리나라 애국가 연주가 있었다. 모든 한국인이 가슴에 손을 얹고 애국가를 따라 불렀다. 나는 그때 우리 한국 근로자들이 애국가를 따라 부르며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있음을 봤다. 물론 내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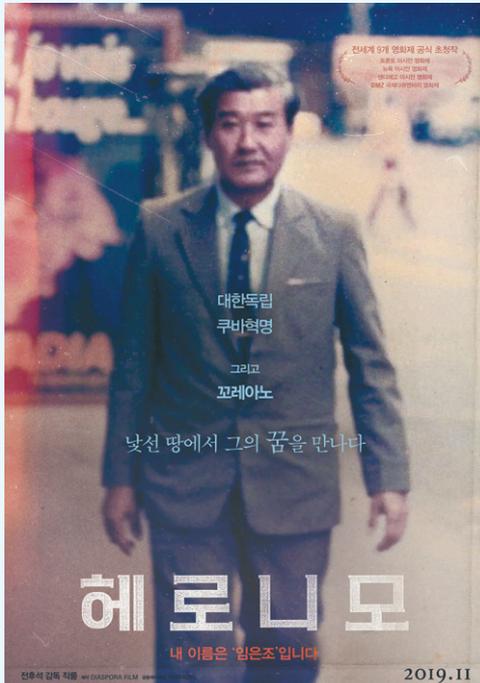
국가란 무엇인가? 그날 저녁 처음으로 가져본 생각이었다. 1980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출장이 있었다. 오이로파라고 하는 조그만 호텔에 묵었는데 그 호텔 바로 앞에 기차역이 있었다. 처음 간 독일이어서 여장을 풀자마자 거리를 돌아보고 있는데 독일 남성의 팔짱을 낀 동양 여성이 나를 보고 다가왔다. 독일인과 결혼한 파독 한인 간호사였다. 병원 밤 근무를 위해 기차를 타려는 참이었고 남편은 아내를 배웅차 같이 나온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내가 한국인임을 확인하고 너무나 반가워하며 한국 소식을 물었다. 그 독일인 남편 또한 나를 붙들고 최근의 한국 얘기를 많이 해달라고 간청했다. 아내가 한국을 너무 그리워하고 한국 소식을 들을 때 매우 행복해한다는 것이었다. 30여 분밖에 안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분들의 한국인을 만난 반가움과 한국 소식에 목마른 간절한 표정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40여 년 전 한국은 너무나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였다. 외국에 나가볼 수 있다는 하나의 이유로 비행기 승무원 시험이 몇십 대 일을 기록하는 그런 시절이었고, 먹고 살기 위해 우리 광부와 간호사들이 멀리 독일까지 가서 돈벌이를 했다. 산업전사였고 한국의 경제에 큰 역할을 했다. 그들은 누구보다 애국자들이었다. 오래 세월 외국을 돌아다니며 재외동포들의 많은 모습을 보았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언제나 한국을 가슴에 안고, 한결같이 조국이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재외동포들, 그들이야말로 애국자들이고 대한민국의 제일 중요한 자산이 아닌가 싶다.

재외동포들을 위해 우리 정부에 한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내가 외국을 돌아다니며 재외동포들을 만날 때 한국인 2세들이 한국말을 못 할 때가 가장 안타까웠다. 맞벌이 부부 등 너무 바쁜 부모님들의 일정으로 어찌다 한국말 배울 기회를 놓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데 한국말을 못 하는 그 본인들은 더 안타까울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이 해결책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러닝'(e-Learning) 시스템으로 전 세계의 재외동포 2세들이 쉽게 한국말을 배울 수 있다. 인터넷 시스템을 활용해 쉽고, 편리하고, 창의적으로 24시간 언제나 한국말을 배울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자. 요즘 이런 플랫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다. 이 플랫폼에 한국의 역사, 문화, 민속을 담고 한국의 발전상을 전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이다. **장**



## 영화 '헤로니모' 시사회



**감독 :** 전후석 前 뉴욕 KOTRA 변호사

**공동제작, 배급/마케팅 :** 커넥트픽처스(대표자 : 남기웅)

**후원 :** 재외동포재단

**시사회 :** 2019.11.12(화), 용산 CGV

**개봉일 :** 2019.11.21(목), 전국개봉

**내용 :** 동포들의 멕시코 '애니깽' 농장 이주 및 쿠바 이주 배경으로 헤로니모 임(한국명 : 임은조)의 삶을 그렸다. 그는 피델 카스트로와 함께 아바나 법대에 진학하고 한인들의 삶을 개선시키고자 쿠바혁명에 가담하여 큰 공을 세운다. 그 후 쿠바 혁명정부에서 체계바라와 함께 일하고 산업자원부 차관까지 오른다. 은퇴 후 쿠바한인회와 기념비를 세우고 한글학교를 시작하여 한인 정체성 복원에 헌신했다. '헤로니모'는 그의 다사다난했던 삶과 현재 재외동포들의 여정을 조명한다.

###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추천 도서



#### 중국 흑룡강성 조선족학교 교가와 그 연구 안병삼(북코리아)

중국 내 조선족 학교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동포 정체성과 조선족 사회를 구성해온 장소이다. 그런 조선족 학교에서 불렀던 교가는 그들의 한(恨)과 감성을 담고 있는 중요한 기록 중 하나이다. 이 연구서는 교육사와 교육사상사에서도 의미가 있는 교가를 총정리했다. 해당 연구서가 조선족 동포사회 관련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 어찌 상스러운 글을 쓰려 하십니까 정재흠(말모이)

이 책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초기까지의 200권 이상의 우리 교과서들을 정리한 에세이이다. 477년에 걸친 우리교과서 전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시대별 한글의 변천 과정도 엿볼 수 있다. 우리 교과서에 나타난 시대적 과정을 살펴보고 역사적 상황도 유추해보는 흥미로운 서적이 될 것이다.



#### 아이들 파는 나라 전홍기혜, 이경은, 제인 정 트렌카(오월의 봄)

국제입양 실태에 대해 아동 인권 관련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이 책은 현직 기자, 활동가, 실제 국제입양의 주인공이 공동저자로 참여하여 대한민국 아동의 국제입양 실태를 파헤치고 있다. 역사적 상황에 따라 국제입양이 최대치로 시행되었던 대한민국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그들의 삶이 각 사회에서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박승의 나는 누구입니까 박승의(구름바다)

실제 사할린 강제징용의 삶을 살았던 박승의의 역사 에세이이다. 이 에세이에서 여섯 번이나 국적을 바꾸면서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게 된 개인적 삶을 통해 시대적 상황 속 개인을 살펴볼 수 있다. 사할린 강제징용의 수난은 아직도 진행 중인 현실이다. 작가는 사할린 강제징용의 역사와 가족의 이야기를 잊지 않기 위해 계속하여 글을 쓰고 널리 알리고 있다. 이 에세이를 통해 우리의 역사와 그 삶 속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통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New 100 years with Hans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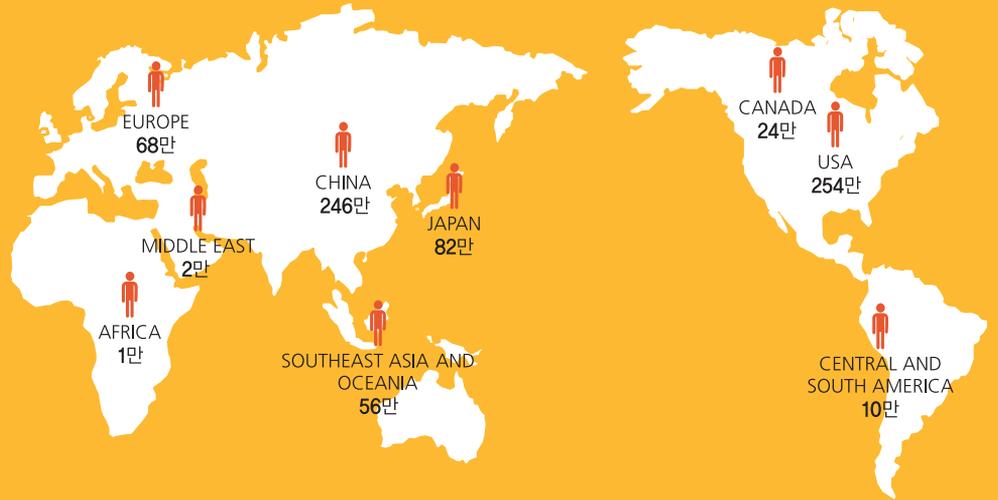
한상과  
함께,

새로운  
100년!

제18차  
**세계한상대회**

THE 18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2019.10. **22**(화) \_ **24**(목) 여수세계박람회장



이민으로  
해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5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